



설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“당신의 설은 어떠십니까?”

① 직장인들 설 연휴 계획을 알려줘! ② 설날 듣고 싶지 않은 말 ‘베스트5’ ③ 내 생애 최고의 설날에 대한 기억

6, 7, 8, 9, 10... 2008년 2월 달력에 체크된 빨간 날이다. 금년 설은 징검다리 휴일로 무려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‘황금연휴’이다. 재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정연휴 사흘(2월6~8일)과 주말(9~10일)을 붙여 5일을 쉰다. 최장 9일을 쉬는 기업도 있다.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두둑해졌다. 귀성비와 선물꾸러미를 따로 챙겨주는 기업도 있다고. 코앞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직장인들은 황금같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?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,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, 공연관람을 즐기려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.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살펴본다.



직장인들의 설 연휴 계획

타향살이 직장인 64.6%, '귀향할 것'

취업포털

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샬러리(www.opensalary.com)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(www.embrain.com)은 20대 이상 직장인 2천 257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에 대해 조사했다.

이번 설 연휴에 총 몇 일간의 연휴를 가질 계획인 지 물어본 결과, '설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을 포함해 5일'이라는 직장인이 68.1%로 가장 많았다.

이도 부족해 휴가를 사용해 연휴를 늘리는 직장인도 꽤 많은 듯 했다. ▶ '6일~8일' 동안 쉬는 직장인이 13.9%였고, ▶ '9일 이상' 쉬는 간 큰 직장인도 3.8%로 나타나, 설 연휴 전 주말부터 내리 일주일 이상의 초장기 연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.

이에 따라 직장인 10명 중 8~9명(85.8%)은 다가오는 설 연휴에 최소 5일 이상의 긴 연휴를 즐길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▶ '4일' (8.1%), ▶ '3일 이하' (6.1%) 등 14.2%의 직장인은 5일을 채 쉬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.

설 연휴 계획을 묻는 물음에는 타지에 살고 있는 직장인 가운데 64.6%는 이미 ▶ '귀향할 계획'을 세워놓은 상태. 고향주변에 사는 직장인 중에서는 83.2%가 ▶ '가족 친지와 명절을 보낼 계획'을 갖고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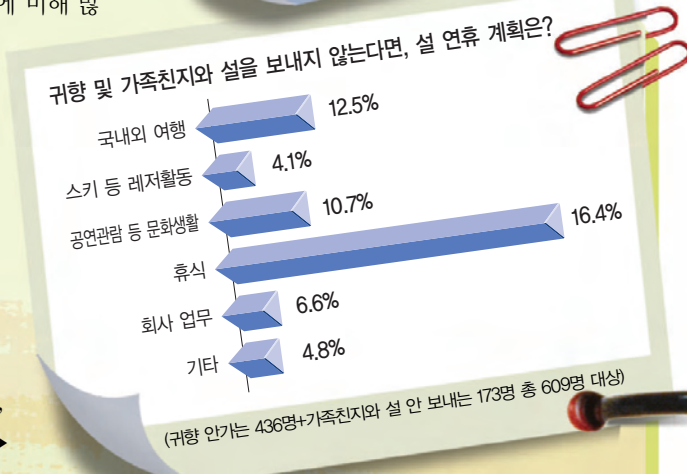
귀향을 하지 않는 등 가족친지와 함께 설을 쇠지 않는 직장인들은 주로 ▶ '휴식' (61.4%)을 취할 계획. 이 외에는 ▶ '국내의 여행' 계획을 세운 직장인이 12.5%로,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, ▶ '공연관람 등 문화생활' (10.7%), ▶ '회사업무(6.6%)', ▶ '스키 등 레저활동' (4.1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설 연휴 동안 직장인들의 주머니 씹씀이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나, 길어진 연휴에 비해서는 다소 경제적인 연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올해 설 지출 계획이 ▶ '작년과 비슷할 것' (75.4%)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대부분인 가운데, ▶ '작년보다 늘릴 것' (14.6%)이라는 응답이 ▶ '작년보다 줄일 것' (10.0%)이라는 응답보다 소폭 높았다.

금액으로는 ▶ '20~30만원 미만' (22.6%), ▶ '10~20만원 미만' (19.1%), ▶ '30~40만원 미만' (17.8%), ▶ '40~50만원 미만' (12.6%) 순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설 연휴 계획을 살펴보면 가족친지와 함께 고향에서 설을 쇠겠다는 직장인들이 많아, 여느 때보다 단란한 설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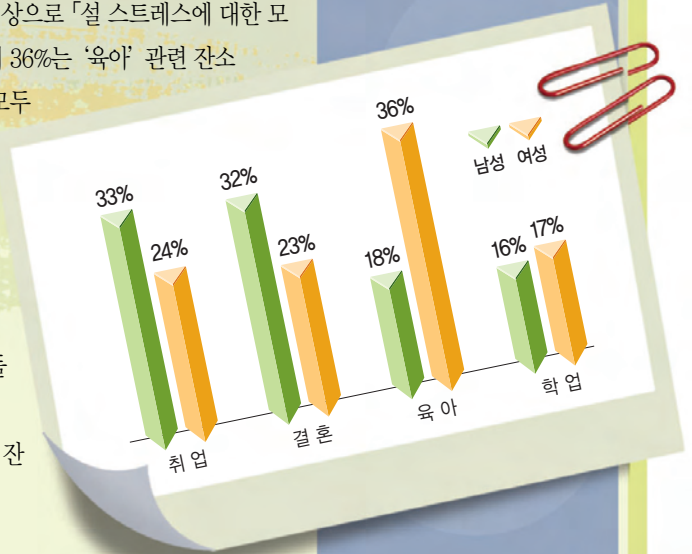


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

‘남-취업’, ‘여-육아’ 제일 듣기 싫어

명절 이되면 많은 친척들이 모이게 된다.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인 만큼 반가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, 어른들께 들을 잔소리를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다. 그렇다면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무엇일까? 온라인 쇼핑몰 옥션이 회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「설 스트레스에 대한 모든 것」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, 남성 응답자의 33%는 ‘취업’을, 여성의 36%는 ‘육아’ 관련 잔소리를 꼽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결혼에 대한 잔소리는 남(32%), 여(23%) 모두에게서 2위를 차지했다. 또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남성은 ▲서먹서먹한 친척들(22%), ▲물가 안정 못시키는 정부(21%), ▲설 선물 챙겨줘야 하는 직장 상사와 업체(19%)를 꼽았다. 특히, 선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40~5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답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.

여성의 경우는 ▲잔소리 하는 시댁과 친정 어른들(24%), ▲서먹서먹한 친척들(19%), ▲가사 노동을 돕지 않는 남편(18%) 순으로 나타났다
연령대별로는 20대는 ‘취업’ (41%), 30대 이상은 ‘육아’ (39%)를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로 꼽아, 나이별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분야가 달랐다.



벤처인들이 들려주는 내 생애 최고의 설날

말레이시아 외딴 섬으로 떠난 5박6일 지오인터랙티브 - 영원한 청춘!!

여행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안다 “이제 결혼해야지!!”란 말의 스트레스를...

올 설에는 친척 어른들이 두 손 꼭 잡고 이런 말로 물어봐 주시면 참 좋겠다.

“해가 갈수록 젊어지는구나! 비결이 뭐니?”

하지만 “예뻐지는 것을 보니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”는 식으로 귀결되면 곤란하다.(어쩐 일인지 어른신들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든 결혼으로 끝난다. 무시무시하다.)

3~4년 전이었던개!

설 연휴에 날짜를 맞춰 말레이시아의 외딴 섬으로 5일 정도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떠난 적이 있다.

새벽 같이 일어나 다이빙을 마친 후 해변이 흰히 보이는 방갈로에 누워서 나른하게 오후를 즐기는 기분...

각종 물고기를 잡아 올린 저녁식사와 시원한 맥주도 일품이었다.

지금도 가끔 일에 지치거나 무료하다 느낄 때면 당시 기분을 떠올리며 혼자 웃곤 한다.

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한 설날 잊지 못해! 유피케미칼 - 귀염둥이**

내 인생 최고의 설날은 아마 작년 설날이 아니었을까 한다.

외국으로 이민 갔던 친척들과 몸이 편찮으셨던 할머니까지 퇴원하여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.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들로 가족들의 소중함과 함께 하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던 명절이었다.

올해는 바쁜 일정을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작년처럼 마음만은 함께하는 설이 되기를 바라며...

